한중일 불교계, 불국사서 세계평화 염원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불교 수행 통한 사회 기여' 주제
각국 불교지도자 등 267명 참석
세계평화기원법회·학술강연회 등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한중일 불교계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주 불국사 일원에서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를 열고 교류와 우호 증진을 바탕으로 세계평화를 위한 의지를 다진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와 중국불교협회(회장 연각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이사장 타케 카쿠쵸 스님)가 함께하는 이번 대회에는 삼국 불교지도자와 관계자 등 267명이 참석한다. '불교의 수행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주제로 각국의 수행 전통과 경험을 나누고, 불교가 현대사회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한다.

대회 첫날인 20일 오후 4시에는 삼국 교류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요 일정과 의제를 공유한다. 삼국 불교계의 공동 실천과 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확정하고 차기 일본대회 일정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각국 회장단 회동과 환영만찬, 축하공연을 통해 우의 증진 시간을 갖는다. 축하공연에서는 '불국토 경주'를 미디어아트로 재현한 퍼포먼스가 준비돼 기대를 모은다.

둘째 날에는 석굴암 참배에 이어 불국사 대웅전 앞에서 세계평화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한국·중국·일본 순으로 각국 전통에 따른 예불을 올리고 세계평화와 인류 화합을 염원하는 기원문을 발표한다. 법회 후에는 범영루 앞 잔디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불국사 도량을 참배하며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한다.

이날 오후에는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국제학술강연회와 공동선언문 발표가 진행된다. 학술강연회에서는 불교 자비와 지혜의 실천으로 현대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조연설은 한국 측 종단협 차석부회장 능원 정사, 중국 측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조성 스님, 일본 측 대승사 주지 코미나미 묘카쿠 스님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한국 △종단협 부회장 만청 스님 △종단협 상임이사 화응 스님 △조계종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 중국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호파한정 스님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추상 스님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동활이 스님이 나선다.

10월 14일 기자들과 만나 대회 기본 개요를 설명한 종단협 사무총장 진호 스님은 "이번 대회는 천년 불국토 경주에서 개최되고, 다른 대회보다 동참 인원이 많아 의미가 크다"며 "삼국 불교계의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발전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4일 새롭게 소임을 맡은 국장 스님 1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은 수여식 후 기념촬영 모습.

조계종, 제38대 집행부 첫 국장단 인사 단행

진우 스님, 10월 14일 임명
총무국장 구산 스님 등 17명
"한국불교 발전·화합에 최선"

조계종이 제38대 집행부 첫 국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새롭게 소임을 맡은 국장 스님 1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원 총무국장에는 구산 스님, 기획국장에 상준 스님, 감사국장에 철인 스님, 포교국장에 현수 스님, 교육국장에 진호 스님, 복지국장에 진정 스님, 재무국장에 보각 스님, 문화국장에 명원 스님, 사회국장에 자하 스님, 사서국장에 하원 스님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조계종연구소 사무국장에 영범 스님, 직할교구 사무국장에 진효 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에 정관 스님, 호법부 상임감찰에 관태·무경·만경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에 우승 스님이 소임을 맡게 됐다.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현묵 스님, 호법부 호법과장 동원 스님, 호법부 상임감찰 혜담 스님, 연등회 사무국장 진용 스님은 제38대 집행부로 유임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장 스님들에게 한국불교의 위상을 되살리고 국민 평안과 K-불교 세계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세계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약해지고 있고, 한국도 다르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교는 1700년 역사를 통해 국민의 정신적 길잡이 역할을 해왔고, 국민들에게도 불교적 DNA가 내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자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해탈과 성불에 이르는 불교의 목적인데, 최근 그런 점들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불교를 이끄는 조계종이 이를 다시 부흥시켜 불자뿐 아니라 국민의 평안을 도모하고, 나아가 K-불교 세계화를 통해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합을 바탕으로 한 종단의 가교 역할도 주문했다. 진우 스님은 "국장 스님들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량"이라며 "화합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포교와 전법을 잘할 방법을 연구해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불교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총무국장 구산 스님은 국장 스님들을 대표해 "총무원장 스님 이하 부실장 스님의 지도 아래 각 국장 스님들과 화합하고, 책임감과 사명감 가지고 한국불교를 꽃피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구룡사·여래사 회주 정우 스님(왼쪽 사진)과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10월 12일 조계종에 네팔 대홍수 피해지원 기금을 각각 전달했다.

정우·명성 스님, 네팔 피해 지원 동참

10월 12일, 진우 스님 예방
지원 기금 각 1억·5000만원

구룡사·여래사 회주 정우 스님과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대홍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힘을 보탰다.

구룡사 주지 성륜 스님과 여래사 주지 각심 스님은 정우 스님을 대신해 10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성금을 모아준 정우 스님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스님은 "피해 규모가 막대해 수습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필요 물품과 생활 시설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운문사 주지 은광 스님도 명성 스님을 대신해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피해 지원 기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은광 스님은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자비의 마음을 베풀고자 하신 명성 스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명성 스님의 뜻을 잘 이어 네팔 복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성 스님은 지난해 경북 산불로 전각 전소 등의 피해를 본 의성 고운사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며 '고운사 산불 피해 복구 기금' 50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이현희 기자

"소나무재선충 피해 막아야"

진우 스님, 산림청과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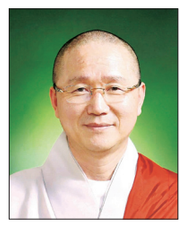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산림청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지 및 산림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우 스님은 10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임하수 산림청 차장의 예방을 받고,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 방제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진우 스님은 "사찰 주변에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아짐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산림청의 향후 대응 계획을 물었다.

이에 임 차장은 "소나무재선충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몸 안에 서식하다가 나무 틈에 들어가 나무를 죽이며, 매개충은 최대 2㎞를 이동할 수 있다"며 "보전돼야 하는 주요 나무들을 중심으로 2㎞ 내외의 산림을 방어 구역으로 설정해 솎아베기와 예방 나무주사를 통해 재선충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천태종 총무원 부원장에 월도 스님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총무원 부원장에 월도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천태종은 10월 9일자로 총무원 부원장에 월도 스님을 임명, 사령장을 수여했다.

임은호 기자



